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본업인 극우 유튜버에 충실하길 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 9392원 등 총 1억 7564만 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1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도합 1억 5542만 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 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선관위는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당 후배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본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만 원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 위원은 총 19만 원을 받았다고 강변했지만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이상 많은 1억 7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1억 7500여 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충정입니다.

정계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김 후보는 감당하기 버거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13일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